

방언에 스며 있는 향기

김정대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I. 머리말

필자가 방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시절 김영태 선생님의 방언학 수업을 듣고부터였다.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 스스로 놀란다. 그러나 필자가 집중적인 눈길을 준 방언은 경남 방언이니, 편식을 해도 이만저만 편식을 한 게 아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방언 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어 조사 사업’을 비롯하여 몇몇 목적을 가지는 조사를 제외한다면, 필자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방언을 수집하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휘가 주된 대상이 되긴 했지만, 문법이나 음운 관련 사항도 적지 않았다. 지역 언어로 표출되는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 등도 접하는 대로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여 ‘경남 방언 사전’을 편찬해 내었으면 하는 바람을 필자는 오래전부터 가져 왔었다.

경남 방언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논문으로 발표하던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실을 어휘·문법·음운으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방언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 보고자 한다.

II. 어휘적 측면

방언 자료의 수집에 있어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별하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방언 조사 질문지에 어휘 조사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1. 같은 형식, 다른 내용

언어와 언어 사이에, 또는 한 언어 안의 방언과 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단어의 차이는, 절대다수의 경우 같은 내용(시니피에)에 서로 다른 형식(시니피앙)이 존재하는 데서 말미암는다. /부추/라는 시니피에가 지역에 따라 [부추], [정구'지]¹⁾, [소'풀], [소불], [솔:]²⁾ 등 다양한 시니피앙으로 실현됨에 따라 방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방언 조사를 하다 보면, 간혹 시니피앙은 같은데 방언 사이의 시니피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필자가 2006년에 창녕 지역어 조사를 하다가 경험한 일은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것이다.

(1) 또 여어 드레는 진달래라 커능기 이씁니다.

(또 여기 들에는 진달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술 발화 제보자 할머니는 창녕 지역에 ‘진달’래’라는 식물이 존재함을 확인해 주셨다. 듣던 순간에 진달래가 들에서 난다는 대목이 신기하여 진달래꽃이붉게 편 들녘의 낭만적인 풍경을 상상하기도 했다.

1) “”는 성조 방언에서 고조라는 성조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2) “:”는 장음을 표시하는 부호이다.

- (2) 그걸또 사라미 머그멘 드기 데고.
(그것도 사람이 먹으면 득이 되고.)

진달래 꽃잎으로 화전도 부쳐 먹으니까 이 대목도 의심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 (3) 예, 모든 씬나무리라꼬, 노랑꼬치 피고.
(예, 모든 쓴 나물이라고, 노랑 꽃이 피고)

라는 말은 조사자를 당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대상 식물이 진실로 표준어 ‘진달래’라면, 쓴 맛에 노랑 꽃이 피는 것과 같은 희한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할머니의 ‘진달’래”는 표준어 ‘민들레’였던 것이다. 당시 필자는 할머니와 같은 지역의 다른 제보자를 대상으로 어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보자 할아버지는 ‘민들레’의 창녕 지역어로 ‘민들’래”와 함께 ‘소똥구부’리’~이’³⁾를 말씀해 주셨지만 ‘진달’래”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이다. 2007년에 있었던 산청 조사에서도 ‘민들레’는 ‘진달’래”, ‘진달랭’이’로 실현되었는데, 창녕에서의 학습 효과 때문이었던지 놀라지는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창원 동읍 지역의 ‘진털’래”도 주의를 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지역어의 ‘진털’래”는 ‘철쭉꽃’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표준어 ‘진달래’를 이 지역에서는 ‘창끈”으로 부른다.

2. 사물의 추상화와 구체화

영어에서는 ‘rice’ 하나로 추상화된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모, 벼, 쌀, 쌀

3) “~”는 비모음을 표시하는 부호이다.

법'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중국어에서는 ‘청(青), 녹(綠), 남(藍)’ 등으로 구별되는 색깔이 한국어에서는 ‘푸르다’ 하나로 추상화되는 경우도 있다. 대상을 두고 추상화가 잘 된 표현이 되었느냐, 구체성을 띠는 표현이 되었느냐 하는 점은 언중들이 소속된 나라나 민족 또는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표준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는 많은 경남 방언에서 ‘참나무’ 하나로 통한다.⁴⁾ 이는 표준어에 비해 경남 방언이 추상화가 잘된 경우의 예라 하겠다. 울주 지역어에서는 ‘돛’과 ‘돛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돛’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 경남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구체성을 띠는 표현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지역어 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에 산청에서 방언을 조사했을 때 경험했던 일이다. 표준어 ‘사괄뜨기’에 대한 대다수의 경남 방언은 ‘사파리’이고, 간혹 ‘사티’~‘이’가 발견되는 정도다. 그런데 산청 지역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명칭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 (4) 가. 근내‘산’: 두 눈동자 모두가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경우
- 나. 고‘리눈’: 두 눈동자가 한쪽으로 몰린 경우
- 다. 사파‘리’: 한쪽 눈동자는 정상이고, 다른 한쪽 눈동자만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경우

『소설 동의보감』의 고향이어서 그럴까, 현대 의학에서나 만날 법한 이런 용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필자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떡갈나무’의 경우는 ‘참나무’와 구별하여 ‘떡’깔나무, 꿀’밤나무, 갈풀’라’무, 도톨나’무’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대상이 이전의 것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휘 분화가 일어나는 일도 있다. 전통적인 ‘팽이’는 채로 쳐야 돌아가지만, 어느 때 이후 줄을 감아서 노는 팽이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럴 때 다수의 경남 지역에서는 전자는 ‘팽이’ 또는 ‘펑’비~이’라 하고, 후자는 ‘공개’라 하여 이를 구별했던 것이다. 고성 지역어에서는 표준어 ‘호미’가 ‘호’미’와 ‘호매’~이’로 분화되기도 하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후자(호매’~이)는 전통적인 형태의 것에 대한 이름인 반면에, 전자(호’미)는 날이 넓적한 새로 나온 대상에 대한 이름인 것이다. ‘딸’과 ‘딸기’의 변별도 흥미롭기는 마찬가지다.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던 전통적인 딸기를 경남에서는 그냥 1음절로 ‘딸’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개량종이 보급되자 이를 표준어 어형 그대로 ‘딸기’라고 불러 재래종과 구별했던 것이다.

3. 명명의 방법과 관련하여

개념적으로 볼 때, 복합어의 성격을 띠는 단어의 명명 방법을 파악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는 기존의 어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방언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의 방법으로 복합어가 생성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전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존재하는 어기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과정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그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언중들의 심리적 현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잠자리’와 관련되는 경남 산청 지역어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5) 철비’: 작은 잠자리

- (6) 가. 짤래'비': 대소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명칭
나. 곰도'리': 대소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명칭

- (7) 가. 물바~아철비': 왕잠자리
나. 물바~아짤래'비': 왕잠자리
다. 수'베'이철비: 왕잠자리
라. 수'베'이곰도'리: 왕잠자리

(5)~(7)은 산청 지역어에 ‘잠자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이름이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왕잠자리’의 의미를 지니는 (7)의 생성 방법이다. (7)은 기존의 어기 ‘철비’, 짤래’비, 곰도’리’를 이용하면서도 그 앞에 또 다른 어기 ‘물바’~‘아’와 ‘수’~‘베’~‘이’를 덧붙임으로써 ‘크다’는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바’~‘아’나 ‘수’~‘베’~‘이’ 자체가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물방아’의 의미이고, 후자는 ‘수병(水兵)’의 의미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왕잠자리는 연못 등 물가를 맴도는 잠자리이다. 따라서 산청 지역인들은 ‘물’과 관련되는 ‘물바’~‘아’나 ‘수’~‘베’~‘이’를 덧붙임으로써 ‘왕잠자리’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명명법과 관련되는 또 다른 예로는 ‘물레방아’계 경남 방언을 들 수 있다. 표준어 ‘물레방아’에 대한 경남 방언은 ‘물방’~‘아’계와 ‘물레방’~‘아’계가 팽팽히 맞서 있다. 두 방언형 첫음절에 ‘물’이 들어 있어 두 어형은 동일한 심리적 기제에 의해 명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물방’~‘아’는 방아가 ‘물(水)’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사실로부터 명명된 것이니, 이는 수단이나 방법이 새 합성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 예에 속한다. 그러나 ‘물레방’~‘아’는 방아의 모양이 ‘물레’와 같다는 심상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 경우는 모양이 새 단어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예가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예로는 ‘쇠죽바가지’에 대한 경남 방언형 ‘나무바가’~‘치’(또는 ‘남바가’~‘치’)와 ‘자래바

가'치'(또는 '자리바가'치')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나무'로 바가지를 만들었다는 제료에 초점을 둔 것이고, 후자는 바가지에 '자루'가 있다는 모양에 초점을 둔 것이다.

III. 문법적 측면

문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펼자는 경남 방언(또는 경상도 방언) 해라체 의문법 어미에 주목한 논문을 몇 편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자료를 수집하면서 가진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서술격 조사 '이-'의 기원형 '일-'

(8) 가. 이기 책가? (대부분 경상도. 구형)

나. 이기 책이가? (대부분 경상도. 신형)

(9) 이게 책이라? (경북 안동 지역어)

(8), (9)는 “이것이 책이냐?”에 대한 몇 가지 전형적인 경상도 방언 표현이다. 사용 지역으로 보면, (9)보다는 (8)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8가)는 구형이고 (8나)가 신형이다. 연구도 많지 않은 데다 자세한 형태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도 희귀하긴 하지만 (8), (9) 밑줄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관념은 ‘이-’를 서술격 조사(계사)로, ‘-가’와 ‘-라’를 해라체 의문법 어미로 보는 듯하다.⁵⁾ 따라서 (8)의 ‘-가’와 (9)의 ‘-라’는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형태소라는 것이, 많지 않은 선행 연구의 결론이었던 것이다.

5) (8가)에 ‘이-’가 없는 것을 두고 선행 연구는 ‘이-’의 생략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첫째는 안동 지역어(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에서 발견되는 ‘-라’라는 형태의 특이성이 문제가 되고, 둘째는 안동 지역어에서는 왜 (8가)와 같은 ‘이-’ 생략형이 불가능한가 하는 점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⁶⁾ 필자는 몇 논문에서 이런 유형의 구성은 (8가)가 기본 문형이고, (8나)와 (9)는 (8가)와 같은 구성에서 서술격 조사가 첨가된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세 한국어와 근대 전반기 한국어 자료를 보면, 이른바 ‘흐라체’ 의문법은 의문의 조사(첨사) ‘가’에 의해 표현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국어 서술어는 대부분 용언이라는 점 때문에 체언으로 끝나는 서술어는 용언화를 위한 장치인 서술격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 (8나)와 (9)는 이런 요구에 의한 결과였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몇몇 학자가 주장한 바 있듯이, 서술격 조사의 기원형을 “*일-”이라고 상정하면, (8나)와 (9)는 동일한 (8가)에서 변화한 결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에서 받침 ‘ㄹ’이 탈락한 상태로 서술격 조사가 첨가되면 (8가)가 되고, “*일-” 자체로 첨가되면 ‘책일가>책일아>책이라’와 같은 (9)가 되는 것이다. ‘ㄹ’ 아래에서 ‘-’이 약화·탈락하는 일은 한국어 역사에서 폭넓게 입증되는 현상이다.

2. ‘-느나’의 존재

‘흐라체’ 의문법 표지와 관련하여 일부 경남 방언에 ‘-느나’라는 어형이 존재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경남 진주,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등 다섯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이 어형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예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6) 안동 지역어에는 “*이기 책라?”와 같은 발화가 없다.

(10) 가. 철이는 밥 둑나?

나. 철이는 밥 둑느냐?

(10)의 두 예는 “철이는 밥 먹느냐?”에 대한 경남 방언형이다. 그런데 (10)은 서울 지역어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방언에 존재하는 다음 표현을 생각나게 한다.

(11) 가. 철이는 밥 먹나?

나. 철이는 밥 먹느냐?

구어체에서는 (11나)보다 (11가)가 주류를 이루는 듯이 보이고, 문어체에서는 아직 (11가)가 허용되지 않고 (11나)만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나)는 구형이고, (11가)는 신형임을 알려 주는 예로 이해된다. 현대 한국어에서 선어말 어미의 하나로 처리되고 있는 ‘-느-’가 존재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를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남 방언 (10)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니, (10나)는 구형이요 (10가)는 신형이라는 것이다. 경남 방언의 ‘-나’는 다른 방언의 ‘-냐’에서 활음(반모음)이 탈락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남 방언에서 이것이 사실임은 (10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그것도 노인층에서만 쓰이고 있는 반면에 (10가)는 광범한 지역과 여러 세대에서 쓰이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경남 방언과 서울 지역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12) 가. 철이는 집에 가나?

나. *철이는 집에 가느냐?

(13) 가. 철이는 집에 가나?

나. 철이는 집에 가느냐?

(12), (13)이 (10), (11)과 다른 점은 서술어인 용언의 어간 말음이 모음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 지역어에서는 ‘가냐?’와 ‘가느냐?’가 모두 쓰이고 있지만, 경남 방언에서는 ‘가나?’만 가능하고 “가느냐?”는 불가능하다. 이런 자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암시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 용언으로 끝나는 서술어의 해라체 의문법 어미는 경남 방언이나 여타 방언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모두 ‘느냐?’였다. 둘째, 경남 방언에서는 ‘-냐>나’의 단모음화와 별도로,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느-’까지 탈락하여 오늘날 ‘가나?’ 형식만 존재하게 되었고,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오는 ‘묵느나?’형은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셋째, 서울 지역어 등 여타 방언에서는 아직 ‘먹나?’와 ‘먹느나?’, ‘가나?’와 ‘가느나?’형이 공존하고 있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느-’가 먼저 탈락되어, ‘가나?’ ‘먹나?’, ‘먹느나?’의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면, 경남 방언에서는 ‘묵느나?’형이 완전히 사라지고 ‘묵나?’, ‘가나?’형만 남게 되고, 서울 지역어 등에서도 ‘먹느나?’형은 완전히 사라지고 ‘먹나?’, ‘가나?’형만 남을 것이다.

IV. 음운적 측면

음운적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은 회고담도 한둘이 아니지만, 지면 관계상 세 가지 사실만 지적하고자 한다.

1. ‘어’로 바뀐 ‘으’

한국어 역사에서 보면, ‘으’(아래아)의 존재는 신비롭기까지 하다. 시기

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제2 음절 이하의 ‘으’는 ‘으’로 바뀌었고,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으’는 ‘아’로 바뀌었다. 그 밖에 불규칙하게 바뀐 ‘으’도 있으니, ‘으>오’ 혹은 ‘으>어’의 변화가 여기에 속한다.

경남 창원시 동읍에서는 ‘펄’을 ‘펄’, ‘펄꿈치’를 ‘펄’꿈치’, ‘펄짱 끼다’를 ‘펄’짬 쪐다’, ‘손목’을 ‘펄목’이라고 한다. 표준어 ‘아’가 이 지역어에서는 ‘어’로 대응하는 셈이다. 그런데 ‘펄’의 중세 한국어 어형은 ‘뚫’이었다. ‘으’를 갖고 있었고, 단어의 첫머리 환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언에서 ‘으’는 ‘아’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 남원, 장수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남 함양 일부 지역에서는 ‘으’가 ‘어’로 변화해 있어 눈길을 끈다. 1990년대 후반 필자는 집중적으로 함양 지역어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런 사실을 목격하고 이는 전북 방언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005년도 창원 지역어 조사와 2007년 산청 지역어 조사 때 이들 지역에도 ‘으>어’ 변화를 경험한 어형이 있어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이런 변화와 관련되는 또 다른 예로는 ‘파리’를 들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풀’이었던 이 말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파리’가 되었고, 다수의 경남 방언에서는 ‘포’리’, ‘포’래~‘이’가 되었는데, 창원 동읍 지역에서는 ‘페래~‘이’가 되었고, 산청 지역어에서는 ‘폐’리”가 되었던 것이다. ‘으’가 직접 ‘어’로 변화한 것인지, ‘아’ 또는 다른 소리로 변화한 뒤에 다시 ‘어’로 변화한지에 대해서는 정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으’(아래 야)의 존재

표준어 ‘여우’는 적지 않은 방언에서 ‘야시, 여시, 여수’ 등으로 실현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방언에 따라 ‘여’와 ‘야’가 대립한다는 점이다. ‘여우’의 중세 한국어 어형은 ‘여수, 옆○’였다. 그런데 첫음절이 본래

부터 ‘여’형이었다면, 이것이 ‘야’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그보다는 ‘여스’ 등의 ‘여’가 본질적으로는 ‘으’였을 것으로 본다면 이런 어려움은 해소된다는 설득력 있는 논의가 학계에 있어 왔고, 필자도 그렇게 믿는 사람 중의 하나다. ‘옆구리’가 ‘여꾸리’와 ‘야꾸리’로, ‘염소’가 ‘염새~이’와 ‘얌새~이’로, ‘겨드랑’이 ‘저트랑’과 ‘자트랑’으로, ‘여덟’이 ‘여덜’과 ‘야달’ 등으로 대립하는 것도 첫음절의 모음이 이중모음 ‘으’였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남 남해에서는 ‘여섯’이 ‘야’선으로 실현되어, 필자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용례를 하나 더 발견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적이 있었음을 덧붙여 둔다.

3. ‘△’에 얹힌 사연

‘봉’과 함께 ‘△’에 얹힌 사연들도 적지 않다. 이들 음소에 대해서는 ‘ㅂ’과 ‘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언어학자들은 안다. 문제는 ‘봉, △’이 기원적인 소리인가, 아니면 어떤 소리에서 변화한 결과인가에 대한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경남 방언을 조사하다 보면, 적지 않은 지역에서 ‘옻’을 ‘숯’ 또는 ‘옻’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옻’의 중세 한국어 어형은 ‘숯’이었는데, 그렇다면 ‘숯’은 ‘△>ㅅ’으로 변화한 결과인지를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은 그 이후 음기를 상실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ㅅ’의 변화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숯’의 ‘ㅅ’은 방언에 따라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숯’의 ‘△’ 또한 그 방언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폐기도 한다. 더 정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2009년에 울주 지역어를 조사했을 때, 제보자 할아버지는 표준어 ‘무슨’을 ‘무진’으로 빌화하여 필자를 놀라게 했다. ‘ㅅ’이 바로 ‘ㅈ’으로 변화하

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의 존재를 상정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슨’과 관련되는 중세 한국어는 ‘므스, 므스, 므슥, 므슴, 므收支, 므ဿ’ 등과 같이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는 ‘ㅅ’이 압도적으로 많다.⁷⁾ 그런데 『두시언해』 초간본에는 ‘므收支’이 두 번 나온다. 『두시언해』의 ‘므收支’과 울주 지역어 ‘무진’은 ‘무슨’의 기원형이 ‘므收支, 므슥, 므슴’ 등 ‘△’계이었을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ㅅ’ 변화의 예로는 ‘손소>손조, 몸소>몸조’ 등을 들 수 있다.

V. 맷음말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문헌이나 표준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언어 사실을 해결할 열쇠가 거기에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럴 때 필자는 행복감에 젖으면서, 이것이 방언이 갖고 있는 ‘향기’라고 확신한다. 경남 남해 지역에는 표준어 ‘아저씨’를 가리키는 말로, ①아’재, ②아지’배, ③아재’씨, ④아저바’씨’라는 네 어휘가 존재한다. ①과 ②는 높임 표현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고, ③과 ④는 높임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①과 ③은 화자가 남자일 때 쓰는 말이고, ②와 ④는 화자가 여자일 때 쓰는 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다양한 말맛과 쓰임새가 표준어에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데이비드 크리스털은 한 언어가 사라지는 데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언어를 익혀야 한다는 지대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마침내 힘 있는 새 언어에 의해 이전의 언어가 소멸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해야만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아무리 적은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는 언어라 하더라도 언어가 소멸하는 것은 재앙이

7) ‘ㅅ’이 탈락한 ‘므엇’이 『소학언해』에 보이기도 한다.

라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언은 위의 세 번째 단계, 즉 소멸의 단계에 도달해 있다. 방언이 사라지고 표준어로 우리말이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각 방언에는 그 나름의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어, 방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인류가 창조한 가장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